



고려시대, 이 시기 문학은 한문학의 전성기이다.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시대, 당시의 충북 대표 문인으로
시조문학의 효시인 우탁이 있다.

이후 조선시대, 이 시기 문학은 국문학의 형성기이다.

훈민정음의 창제로 진정한 의미의 국문학이 형성되어진 시기로
당시의 충북 대표 문인으로 현실 초월적인 삶의 대학자, 옥소 권섭과
17세기 최고의 문인 김득신이 있다.

17세기 최고의 시인 백곡 김득신

백곡 김득신은 우뚝 솟은 봉우리를 차지한 문인이었다. 평생 왕성한 작품 활동으로 1,500여 수의 시를 남긴 시인이었는가 하면, 시화집 『종남총지(終南叢志)』를 저술하여自得(自得)의 감식안(鑑識眼)으로 비평세계를 전개했던 시론가이자, 비평가였다



백곡柏谷 김득신金得臣(1604~1684)은 17세기 문단의 중심에 자리한 시인이다.

문학동우회인 ‘문회계(文會契)’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180여 편의 산문을 남긴 문장가이며, 문학활동을 통해서 피력한 그의 시관(詩觀)은 인위적이거나, 도식적인 형식미보다는 내용의 진실성과 사실성에 기준을 둔 천기론적(天機論的) 시관을 이었으며, 시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묘오(妙悟)의 단계를 거쳐야 감식안이 생긴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문관(文觀)으로 궁극적으로 존한(尊漢)의 모방 차원을 초월하여 독자적인 경지를 추구하고자 하였고, 문장 기법에 대해서도 의(意)가 먼저이고, 법(法)이 다음이라는 선의 후법론(先意後法論)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자신도 직접 독자적인 시문가(詩文家)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한 ‘고음(苦吟)’과 ‘다독(多讀)’으로 유명한 인물이기도 하다.

*자득(自得)_스스로 깨달아 얻음 *감식안(鑑識眼)_어떤 사물의 가치나 진위 따위를 구별하여 알아내는 눈.

01 김득신의 출생과 어린시절

김득신은 선조 37년(1604년)에 출생하여 광해군·인조·효종·현종을 거쳐 숙종 10년(1684)에 생을 마친 조선 중기의 시인이며, 그의 자는 자공(子公), 호는 백곡(柏谷)이다. 관향은 안동으로 고려 충렬공 김방경(金方慶)의 14대손이며, 제학공(提學公)파의 10대손이다. 고조 김석(金錫)은 중종대에 진사에 급제하였고, 증조 김충갑(金忠甲)은 사헌부 지평을 역임했다. 조부는 임란왜란 3대 대첩의 하나인 진주성 싸움을 승리로 이끈 충무공 김시민(金時敏)이다. 그러나 후사가 없어 그의 백형(伯兄)인 부평부사 김시회(金時晦)의 4남을 양자로 삼으니, 이가 바로 백곡의 부친인 안흥군(安興君) 김치(金緻; 1577-1625)이다.

김득신은 어려서 몹시 노둔하여 10살 때서야 비로소 부친에게서 『사략』을 배웠지만, 3일이 지나도록 잘 읽지도 못했다 한다. 그러나 부친은 이런 그에게 더욱 분발할 것을 독려했고, 그 뒤로 열심히 노력하여 연시(聯詩)를 짓는 등 시에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다.



02 일억만 번의 독서량, 억만재(億萬齋)

김득신의 나이 24세 때에 부친상을 치른 그는 외숙인 예조참판 목서흠(睦鉸欽)으로부터 문사(文辭)의 시험을 통해 시재(詩才)를 인정받고 문인들로부터 시로써 크게 세상에 떨칠 것이라는 평을 듣는다. 한문사대가 중 한 사람인 택당(澤堂) 이식(李植)에게 인정을 받는가 하면, 『용호(龍湖)』와 『한강(漢江)』 등의 시는 효종에게 극찬받기에 이르렀고, 이런 계기로 그는 시명(詩名)을 크게 떨친다. 그 당시부터 시작된 엄청난 횟수의 독서는 『고문삼십육수독수기(古文三十六首讀數記)』에 잘 나타나 있다. 이 기(記)는 31세(1634)때부터 67세(1670)때까지 36년 동안 36편의 고문을 반복 독파하고 지은 것인데, 그중에 『백이전(伯夷傳)』을 일억 일만 삼천 번이나 읽었다 하여 자기의 서재를 '억만재(億萬齋)'라 이름 짓는다.



일억만 번의 독서량

왼쪽부터 _ 『백곡집』, 『백곡시집』, 백곡집 목판본, 백곡친필

03 벼슬길에 오른 김득신과 취묵당

김득신이 59세가 되던 현종 3년(1662) 3월에 증광시 병과에 급제하여 비로소 환로(宦路)에 오르게 된다. 그는 나이가 많다 하여 성균관 학유로 임명된 것을 시작으로 성균관 전적, 병·공·예조좌랑, 홍천 현감, 강원도사, 성균관 직강, 정선 군수, 풍기 군수, 성균사예, 사헌부 장령, 제용감정, 사복시정, 군자감정, 종부시정, 사도시정, 승문원 판교, 장악원정을 배관(拜官)받는다. 그러나 그의 벼슬길은 순탄하지 않아서 홍천 현감과 정선 군수는 대신들이 ‘김득신이 시인일 뿐 일에는 소홀해서 그 관식에 적합하지 않다’고 저지하여 부임하지 못했고, 장령은 두 번 제수 받았지만 역시 적합하지 않다고 탄핵을 받기도 한다. 그러던 중 그는 벼슬살이가 오히려 재앙거리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는 사직하여 시인으로서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와 취묵당(醉默堂)에서 음주부시하며 스스로 즐긴다. 환로(宦路) - 벼슬길



벼슬길에 오른 김득신과 취묵당

왼쪽부터 취묵당 전경과 성균관 교지

04 시대적 환경과 문학적 독자성 확립

김득신은 그의 나이 74세 때, 사도시정으로서 증광시 시험관이 되고 78세 때에는 세훈으로 통정대부가 되었으며, 80세에는 우로의 은전으로 가선대부로 위계가 올라 안풍군으로 **습봉**된다. 그러나 이듬해인 81세에 화적에 의해 취묵당에서 살해를 당한다.

이상과 같이 김득신의 삶은 40여 년의 문장수련기를 감내하며 입신양명을 향한 의지로 점철된 **구환기(求宦期)**, 당쟁으로 인한 탄핵과 비방으로 얼룩지고 짧았던 **사환기(仕宦期)**, 명리를 버리고 취묵당에서 생을 마쳤던 **치사기(致仕期)**로 나눌 수 있다.

결국 이런 불우했던 그의 삶과 인조반정·정묘호란·병자호란 같은 처참한 경험들은 그로 하여금 시에 전념하게 한 계기로 작용했을 것이며, 그럴수록 문학에 뜻을 두고 시를 짓고 다듬는 것이야말로 자기 생애를 보람 있게 하는 길이라 굳게 여겼을 것이다.

습봉(襲封)_ 제후(諸侯)가 원대의 영지(領地)를 물려받음



작가연보

- 1604 10월 18일 증평읍 내성리(삼성댁이) 탄생 부친 남봉 김치(金緻)와 모친 사천 독씨(泗川睦氏) 사이에 장남으로 출생 본관은 안동으로, 충무공 김시민의 손자임.
- 1613 10세 충청도 청당현[현 증평]에서 부친과 살음 부친에게 글을 배우기 시작하였으나 문리를 통하지 못함.
- 1622 21세 동래부사인 부친을 임지로 가서 뵈고 학문의 성취에 대한 칭찬과 장려의 말을 들음.
- 1625 22세 부친이 경상감사로 출하자 증평의 율리로 운구하여 장사지냄.
- 1627 삼년상을 마친 뒤 문장이 더욱 신장됨. 외삼촌 목서흥(睦敍興)에게 문사의 시험을 통해 시재(詩才)를 인정받음.
- 1630 이후로, 집과 산사(山寺), 충청지방, 서울을 다니며 30여 년간 문장 수업에 매진함.
- 1634 고문 36편을 반복 독파하기 시작함.
- 1637 봄에 영남에서 충청도 목천으로 돌아옴. 관동 지방을 유람함.
- 1638 35세 봄에 관동의 삼척에 머뭄.
- 1640 37세 백의(白衣)의 제술관(製述官)으로 추천을 받음. 한문대가인 택당(澤堂) 이식(李植)에게 '당대 제일의 시문(詩文)'이라 인정받음
- 1642 39세 식년 진사에 합격함. 글 읽기를 부지런히 하여, 백이전은 억 번을 읽어 서재를 '억만재(億萬齋)'라고 함.
- 1643 40세 2월에 박장원이 안음태수가 되어 부임길에 목천에 들리자 같이 영동에 이름. 8월에 서원의 도정 골짜기에 도정당(桃汀堂)을 짓고 거처함.

작가연보

- 1645 42세 음보로 숙녕전 참봉이 되었으나, 그만두고 돌아와 이후 20년간 학업에 전념함.
- 1650 47세 호서(湖西)에 거처함. 가을에 춘전에 있는 박장원을 방문함. 『용호(龍湖)』와 『한강(漢江)』 시가 효종으로부터 칭찬을 받음.
- 1651 3월에 오근촌에 이름.
- 1652 49세 상당(淸州)의 도정 글짜기에 거처함.
- 1653 50세 서울에 거처함.
- 1656 53세 봄에 청당현 율치(현 증평 율리)에 이름.
- 1657 54세 모친상을 당함.
- 1659 56세 누차 과거에 낙방하자 사람들이 '시가 사람을 궁하게 만든 경우' 라며 안타까워함.
- 1660 57세 가을에 향시로 청당현(현 증평)에 이름.
- 1662 59세 3월 문과 증광시 병과에 급제하여 성균관학유로 벼슬살이 시작함. 8월 목전 집에서 괴산 능촌리에 이르러 취묵당을 건축함.
- 1663 60세 봄 하순에 『취묵당기(醉默堂記)』를 지음. 취묵당에 기거함. 2월 공조좌랑에 제수됨. 10월 동훈대부로 병조좌랑에 제수됨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박장원과 함께 송도를 여행함.
- 1664 61세 2월 예조좌랑과 성균관직강에 제수됨. 4월 단양에 가서 윤선거(尹宣舉)를 만나 함께 단양 일대를 유람하고 괴산으로 거처를 옮김.
6월에 홍천현감에 제수되지만, 백곡은 '시인으로서 일어는 소활하다'는 조정의 의론이 일어남. 윤 6월에 직강에 제수되어 사은함.

작가연보

- 1665 4월에 직강에 제수되지만 숙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조에서 개차할 것을 청함. 7월에 직강에 제수됨. 8월에 금강산(金剛山)에서 서울로 향함.
- 1666 63세 6월에 예조정랑에 제수되어 사은함. 7월에 예필 박세모와 현릉을 봉심(奉審)함. 7월에 검춘추에 제수됨. 9월에 성균관사예에 제수됨.
- 1667 64세 4월에 직강에 제수됨.
- 1668 65세 4월에 제용정에 제수됨. 12월에 제용감정에 임명됨. 12월에 풍기군수에 제수됨.
- 1669 66세 2월 박장원의 추천으로 장령에 제수되지만, 4월에 본직에 적합하지 않다고 체직됨. 4월 어모장군 행룡양위부호군에 제수됨. 7월 원양도사에 제수되나 병세로 부임하기 어렵다고 장을 올려서 개차됨.
- 1670 67세 여름에 31세(1634)부터 36년 동안 36편의 고문의 반복 독파를 마치고 취묵당에서 『독수기(讀數記)』를 지음.
- 1671 68세 3월에 예빈정에 제수됨. 6월에 정선군수에 낙점되지만 연한이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개차된 뒤 사예에 제수됨.
- 1673 70세 종부정에 제수됨.
- 1675 72세 5월에 승정원판교 검춘추관편수관에 제수됨.
- 1676 73세 10월에 사도사정에 제수되어 사은함.
- 1677 74세 6월에 지제교에 부직됨. 9월에 경기도 죽천(죽산)에 감. 11월에 사복정에 제수됨. 12월에 영달만호로 사은함.

작가연보

1678 75세 증광시 시험관을 역임함.

1679 76세 군자정에 제수됨.

1681 78세 세훈으로 가자되어 통정대부에 오름.

1683 80세 1월에 우로(優老)의 은전으로 가선대부로 위계가 오르고 안풍군에 습봉됨.

1684 81세 8월 30일 와병 중에 화적에게 상해를 당하여 취묵당에서 졸서(卒逝)함 (비문은 29일로 되어 있음).

11월 29일에 증평의 율리 좌구산 선영에 묻힘.